부산·경남,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불 밝히다

지역 연합회 및 사찰 점등식 봉행
천태종 삼광사, 10만 연등 불 밝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도
경찰서 연등 밝히며 시민 안전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경남 지역 사찰과 지역 연합회가 점등식을 봉행하고 장엄등에 불을 밝혔다. 이번 점등식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국운융창 등 나라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가 5월 7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는 도량에 10만여 연등과 장엄등을 밝히고 평화와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기원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국운융창 및 부산 발전을 염원했다.

점등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 기원 △봉행사 △점등사 △점등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도용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 생각 청정하면 온 세계가 밝아지니,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면 인류의 마음에도 평화가 성취되리라"며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사바세계의 무명을 밝히고 정법의 등을 높이 들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불국정토를 거룩하게 장엄하라"고 법문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점등사에서 "오늘 삼광사에서 밝히는 등불은 부처님의 향기를 담아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까지 밝게 비추어,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서광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밝히는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되어 국민화합과 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점등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서병수, 이헌승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등 내빈들이 동참했다.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가 5월 6일 장안사에서 불기 2567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회장 정오 스님,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 고불사 해월 스님 등 기장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정종복 기장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점등식은 개막을 알리는 28타종식으로 시작해 예불 후 본행사가 이어졌다. 본행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환영사, 봉행사, 축사, 헌화공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점등 후 탑돌이는 우천으로 인해 설법전을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진행됐다.


부산·경남 대표 사찰 및 불교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삼광사 점등 모습.

회장 정오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다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된 것 같다. 기장군불교연합회 점등식은 그동안 노력해준 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관심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다"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는 5월 9일 경내 일원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국민화합과 국운융창을 위해 열린 이번 점등식은 봉축 점등 및 봉행사, 점등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봉축가, 발원 문 및 석가모니 정근으로 마무리됐다.

춘광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밝히는 봉축의 등불은 지혜의 등불이며 자비의 빛"이라며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혀 거짓과 위선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이기도 하다. 우리가 모두 함께 밝히는 이 찬란한 등불은 번뇌와 욕망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자비, 행복의 세상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5월 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로비 일층에 연등을 밝혀 경찰들과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이 땅에 나투신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점등식에는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 원순 스님, 대각 스님, 능후 스님을 비롯해 박광주 부산남부경찰서 및 경찰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점등식은 인사말씀 및 점등,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원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찰 서장님을 비롯해 형사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부산사상구경승위원회(실장 성문)는 5월 2일 사상경찰서 내 1층 로비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사상구가 되기를 발원하는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경승실장 성문 스님(선광사 주지), 총무국장 법경 스님(관음사 주지), 경승위원 자륜 스님(낙은사 주지), 향공 스님(견강암 주지), 은적 스님(관음사 주지)과 남기병 사상경찰서장 외 사상경찰서 직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점등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봉행사 △축원 △경찰서장 인사말 △경승실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예전에 사상구는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서장님께서 오신 후 사상경찰서가 범죄 없는 도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말로 축하한다"며 "이 모든 게 덕장이신 서장님과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이다. 앞으로도 사상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운)는 5월 9일 고성 송학동 고분군에서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고성불교사암연합 회장 수운 스님, 지성 스님, 법진 스님, 이암 스님, 마가 스님, 월암 스님, 현제 스님, 진각 스님, 원명 스님, 통영불교사암연합 회장 종묵 스님, 도법 스님, 자용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사찰 임원진 및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대회사, 점등, 봉축사, 축사, 발원문, 축가, 석가모니불 정근 순으로 진행했다.

회장 수운 스님은 "해마다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탑등에 불을 밝히고 삼라만상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의 주인공임을 알기를 바란다"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정불심'으로 전한 장학금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식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5월 10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하고 중학생 각 30만 원(11명), 고등학생 및 대학생 각 50만 원(7명) 등 총 18명에게 장학금 총 68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대종사, 정찬 스님(도림사)을 비롯해 정분남 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고문, 백명숙 부산파라미타 협회장, 현익채 금정중학교 교장, 천용귀 前 부산파라미타 사무처장, 정경연 부산파라미타 처장, 부산여성불자회 임직원 및 회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5월 10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은 개회,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격려사, 인사말, 축사, 장학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혜총 대종사는 "오늘 장학금은 부산여성불자회에서 진행하는 거룩한 불사"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학업에 집중하고 충실하기를 바라는 부산여성불자회원들의 마음은 불보살의 마음이고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격려했다.

정찬 스님은 "청소년은 미래 불교의 주역이며 동량"이라며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고 불자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분남 회장은 "장학금 전달은 오늘 함께해준 여성불자회 회원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으로 이룬 결과이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용기를 얻고 희망하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여성불자회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자비로써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마음을 자양분 삼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은 삼보순례 기도수행을 이끌고 있으며, 기도 수행 보시금을 모아 인재불사에 앞장서 왔다. 정분남 회장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로 동국대에서 공부할 당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학생을 만나 원력을 세우고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정분남 회장은 2013년 동국대 WISE캠퍼스에 삼보장학회를 설립하고 10년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7월에 부산여성불자회 장관으로 취임해 인재불사를 이어갔으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보살이 될 것을 서원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재활용 보자기로 포장 전달해 환경보호를 위한 모범적인 실천 행동으로 눈길을 모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밀양불교사암聯, 위문품 전달

5월 8일, 떡과 라면 등 간식 전달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밀양경찰서와 밀양소방서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 전달식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대원암 현송 스님, 무봉사 천주 스님, 약수암 환명 스님을 비롯한 김병주 밀양경찰서장, 최경범 밀양소방서장 등 소방관계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밀양소방서와 밀양경찰서에 각각 떡 200인분, 라면 300개를 전달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은 "봄철이면 많은 산불이 발생해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또 지역 치안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책임을 다해주는 경찰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찰들과 소방관이 곧 호법신장이며 이분들로 인해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옥천암, 어르신 나들이 孝 실천

부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관광여행을 진행하고 효 사상을 실천했다.

옥천암은 5월 10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여행지는 경남 합천 합천댐이며 주지 대각 스님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20여 명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동참했다.

옥천암은 여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와 도시락 및 간식 등을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부모를 공양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해 효도 관광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속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를 실천해 공덕을 쌓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일불교교류協 여성부, 무차 만발공양

5월 7일 음식 2000인 분 전달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5월 7일 송상현 광장 일대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무차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백명숙 회장은 이번 만발공양을 위해 새벽부터 음식 2000인 분을 마련했으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사무총장 향운 스님을 비롯해 회원 50여 명이 동참했다.

우중에도 오전부터 오고가던 시민들은 가족들과 비빔밥을 먹으며 감사함을 전했다. 비빔밥을 먹은 한 시민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음식을 맛보고 싶었고 지난해 여기서 먹었던 공양 생각나서 찾아오게 되었다"며 "이번 해에도 비빔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사무총장 향운 스님은 "16년 동안 한결 같이 무차만발공양을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뜻을 전달하고 있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하늘에 달은 하나이지만 천 개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는 말이 있다. 부처님의 광명을 두루 널리 알리고 무명이 사라져 모두가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백명숙 회장은 "비가 오는 중에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차만발공양을 하며 절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위로를 얻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전해주고 간다. 보람되고 평등과 자비를 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개금사회복지관, 고독사 예방 어플 개발

KT부산경남광역본부 사랑의봉사단 동참

사회복지법인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플 '개금안테나'를 개발하고 보급에 앞장섰다.

어플 '개금안테나'는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이다. 어플 '개금안테나'는 시니어 건강신호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복지관 담당자가 관리해 고독사 방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의 전기, 가스, 생활안전 자가점검을 통한 위험예방 활동과 복지관 담당자와의 다이렉트 영상통화, SNS(카카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방향소통을 한다. 이번 어플개발 및 교육은 KT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랑의 봉사단이 제공했다.



류강렬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의미 있는 나눔을 진행해준 KT부산경남광역본부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복지관 앱과 스마트기기 활용 무상 교육으로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최근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봉균 KT부산경남광역본부 전무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정보취약계층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부산 15분 복지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제123회 선찰대본산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1901년 성월 스님이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수계산림을 시작해 올 해로 123회를 맞아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살계는 천수다라니, 노사나불 정근, 주지 스님 인사말, 전계사 스님 법문, 십중대계, 보살계 48경계 등이 이어졌으며 수계식 및 계첩 수여로 마무리됐으며, 삼화상은 전계대화상 서림 대성 스님, 갈마아사리 일여 영환 스님, 교수아사리 도홍 화랑 스님이 맡았으며, 존증아사리는 정사 도근, 금옹 계전, 금당 범산, 여산 원타, 야허 정산, 보월 보운 스님이 담당해 법석을 증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